

동국대 초대 건학위원장이자 현재 건학위 총재인 자승 스님(사진 앞열 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동국대 건학위원들과 불교계 대표 스님 · 학교관계자들이 2021년 4월 19일 건학위 출범식에서 한자리에 모여 불교중흥을 서원하고 있다.

동국발전 불교중흥 첫 돌, 새 아침 맞다

동국대 쇄신과 불교 중흥 기치
'제2 건학'의 새 결사정신 걸어
1년간 조직 구성 및 비전 수립

인재 양성위한 장학불사 나서
불교계의 지원 이끌어 낸 성과
제2 불교병원·역량 결집 추진

동국대 건학위원회 출범 1년

종립 동국대학교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해 2021년 4월 19일 힘차게 출범한 동국대 건학위원회(총재 자승)가 출범 1년을 맞았다. 학교 안팎으로 수많은 역경을 딛고 쇄신과 발전을 이끌고 있는 건학위원회의 그동안 활동과 향후 계획을 살펴보았다.

노덕현 기자

상월결사, 동국결사 이어지다

"불교중흥이 동국발전이요, 동국발전이 곧 불교중흥입니다."

건학위원회는 건학위 총재이자 고문인 해봉 자승 스님이 상월결사 이후 "불교중흥이 동국발전이요, 동국발전이 곧 불교중흥"이라는 가르침을 내리면서 설립됐다.

"꽃 피는 좋은 봄날입니다. 건학위가 출범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기쁘지만 한편으론 마음 무겁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불교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출가자와 신도가 나날이 줄어들고, 사찰 살림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종립학교 구성원 조차 부처님 가르침에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는 한국불교의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건학위는 종립학교 구성원의 자기반성과 새로운 다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한국불교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건학위 출범 당시 자승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동국대 건학위 비전을 비롯한 목표와 전략 등이 수립됐다.

건학정신 기리는 조직 구성

동국대는 불교를 중흥하고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키워내고자 하는 불교계의 바람이 담겨 건학됐다. 이런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건학위 출범 후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해 조직 구성과 역할 분담을 맡게 됐다.

교육과 의료, 지역, 글로벌 등 4개 분과위원회와 건학위 사무국, 13개 산하기관 건학위 등의 체계를 갖췄다. 이를 통해 동국대가 지닌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제2건학을 위해 한마음 한뜻을 모았다.

제2건학의 비전 새롭게 수립

건학위원회는 1년간 여러 가지 성과를 냈지만 가장 중요한 성과는 동국대를 중심으로 한 불교계 안팎에 '함께하는 동국발전, 피어나는 불교중흥' 이라는 공동의 목표지점, 즉 비전을 심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불교정신의 사회적 확산과 자부심 고취,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지식인 양성, 글로벌 명문사학으로의 인류사회 공헌이라는 목표를 수립했고, 비전 달성을 위한 '삶 속 참여' '연계공유' '지속가능성장' '정체성 확립' 의 4대전략을 바탕으로 교육불사, 의료불사, 불교문화 확산, 보시문화 확산을 추진해가고 있다.

건학위원회의 1년 성과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장학' 분야다. 인재양성을 위해 특히 불교계의 성원을 이끌어 낸 점이 건학위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개별적으로 사찰이 진행해오던 장학을 종립대학이 하나로 통합한 지역미래불자육성 장학은 1년간 11회 장학수여가 이뤄질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불교중흥 대작불사 향후 진행

건학위가 1년간 조직구성과 비전 및 계획 수립, 기반사업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동국발전과 불교중흥의 비전에 맞는 중점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년간 주춧돌을 놓는 작업이 진행됐다면 이제 거대한 불사의 기둥을 세우는 불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건학위는 현재 '제2건학' 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4대 분야, 10대 과제, 5대 핵심사업, 2대 실행사업을 수립한 상태다.

4대 분야는 교육, 의료, 지역, 글로벌 분야로 교육 분야에는 △기관별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일상불교 확산 △정체성 확립 체계 구축 △건학이념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 △불교콘텐츠 생산 및 홍보 등 5개 과제, 의료 분야에는 △제2병원 건립의 1개 과제, 지역 분야에는 △불교인재 양성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불교종립학교 연계강화 △기부금 문화 확산체계 구축 등 3개 과제, 글로벌 분야에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건학이념 해외 확산 등 1개 과제가 추진된다.

이와 별개로 5대 핵심사업으로 △학생 장학 및 취업 △중등학교 통합확대 △디지털 대장경 구축 △제2병원 건립 △사이버대학 건립이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2대 실행사업으로는 건학기본기관장연석회의와 동국총조사 등이 있다.

시대흐름 맞는 중점사업 전개

세부적으로는 산하기관별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 목표를 수립해 3대 사학의 위상 회복을 모색하는가 하면, 코로나19로 인한 4차산업 혁명 가속화를 대비한 메타버시티 플랫폼 구축, 불교사전 편찬 및 동문열전 '동국의 빛 편찬' 등 건학이념 구현도서 발간, 학령인구 감소 속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제도 활성화로 등록금 걱정없는 대학 만들기, 재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동국 잡페어' 개최, 불교중등학교 통합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 디지털 대장경 조성으로 미래형 공유플랫폼 구축, 신도시 거점에 제2불교병원 건립, 온라인교육 및 평생교육 대응 위한 사이버대학 설립, 13개 산하기관 역량결집 위한 동국총조사 실시 등이 추진된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동국 발전이 불교중흥이며, 불교중흥이 동국발전이라는 비전 하에 쉼없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인의식 갖고 정진을"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건학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제2건학의 필요성이 누적되고 절감하던 시기, 자승 스님께서 동국발전이 불교중흥이라는 뜻을 내시고 고문이자 건학위원장의 자리를 진중하게 수락하시며 건학위가 첫걸음을 시작하게 됐다"며 "출범 초기 장학제도 혁신을 통한 인재양성과 완전한 사회진출, 건학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정체성 확립이라는 두 가지 단단한 지침을 제시하였고 이는 건학위원회가 나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환한 등불이 되었다"고 말했다.

건학위원장으로서 스님은 최근 학교와 학생, 동문을 아우르는 구성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 스님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 수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한 조언을 경청해 왔다"며 "동국학원의 설립정신이 역사의 기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변화에 대한 기대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학위원회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최근 불교계 안팎에서는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스님은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책임감은 한결같이 무거워 언제나 시작하는 마음 그대로"라며 "동국 구성원 모두가 학교의 주인이자 삶의 주인이라는 지혜로움 속에서 발전과 중흥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자"고 당부했다.





